안산 시승격 30주년
1000년의 숨 30년의 땀 100년의 꿈

브라보 안산
BRAVO ANSAN

NO. 427 / ANSAN CITY NEWSPAPER

안산시와 SNS로 친구맺기
ⓑ blog.naver.com/cityansan
ⓕ facebook.com/ansancity3
ⓣ twitter.com/ansancityhall
ⓢ story.kakao.com/ch/ansancity

발행일 2016년 9월 28일
발행인 안산시장 제종길
발행처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87 안산시청공보관
무료 정기구독 신청 Tel 031.481.2042 / Fax 031.481.3224 / E-mail bravo@iansan.net
e-브라보안산 https://bravoansan.net

2016. 09. 28

2 안산의 도서관이 궁금해?
도서관,
그 안에서 지혜가 싹튼다

5 350명의 에디슨을 만나다!
2016 안산사이언스 밸리
(ASV) 과학축제

5 안전한 마을만들기
아동·여성 안전망 구축
셉테드(CPTED) 사업

8 우리 모두의 고향
사진으로 보는
추억속의 안산

시 승격 30주년을 맞은

안산시에는 30개의 도서관이 있어요

동네마다 크고 작은 도서관이
자리 잡은 **안산, 시민에게 도서관은 어떤 의미일까?**

도서관은 비용 걱정 없이 책을 읽으며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는 최적의 장소다.
그러나 이제 도서관은 볼거리와 배울거리까지
풍성한 곳으로 변모하고 있다.
그런 도서관이 있어 나는 참 좋다.
책으로 마음의 양식을 채우는 계절, 가을이다.

"당신 생각을 켜 놓은 채 잠이 들었습니다"
동네 도서관에서 함민복 시인의 한 줄짜리 시
<가을>을 읽으며 당신 생각을 켜 보기를 …

• 도서관홈페이지_http://lib.iansan.net

신선영 명예기자 _ woghkah@hanmail.net
이선희 명예기자 _ iamyou70@hanmail.net

단원어린이도서관

단원어린이도서관은 어린이도서관으로서의 역할에 특화된 북스타트 후속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안산에 거주하는 생후 3개월~36개월의 아기라면 누구나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북스타트 회원에게는 프로그램 참여는 물론 책 꾸러미도 선물해준다. 또 영어그림책을 교재로 책과 연계된 다양한 활동놀이를 통해 영어와 책에 대한 흥미를 높이는 'I love story'는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높다.

어린이도서관이 개관한다는 반가운 소식에 아장아장 걷던 세 살짜리 딸아이 손을 잡고 방문하던 날이 생각납니다. 집 근처 도서관 덕분에 책을 사랑하게 된 5학년 큰아이와 2학년 작은아이, 두 아이를 키우며 때로는 휴식 공간이, 때로는 문화체험의 장이 되어준 우리 동네의 자랑거리 단원어린이도서관을 사랑합니다.

이경순(고잔동, 41세)

안산미디어라이브러리

전국에서 손꼽는 미디어·영어 특화 도서관이다. 제1·2영어자료실, 미디어자료실, 영상·음향스튜디오, 미디어편집실을 갖추고, 수준별 영어도서 1만3천여 권과 DVD 2천711종을 비치, 전문 영상 · 음향 · 녹음 장비를 갖춘 미디어정보센터로서의 전문 서비스를 제공한다.

집근처에 새로 생긴 영어전문도서관에서 영어 수업을 받고 있는데, 선생님이 쉽고 재미있게 가르쳐주셔서 자신감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 시설이 좋고 , 컴퓨터도 많고, 도서관에서 여러 활동을 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아요.

박수현(슬기초6)

중앙도서관

매년 독서토론대회를 열어 열띤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 '인문학 열두 마당'을 운영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 시민들의 인문학적 소양을 넓히고 있다. 10월 6일에는 「7년의 밤」의 저자 정유정 작가와의 만남을 준비한다. 10월 1일에 열리는 '안산시 도서관 책 문화축제'를 위해 막바지 에너지를 쏟고 있다.

안산다문화작은도서관 & 모두어린이작은도서관

국경 없는 마을이라 일컫는 원곡동에 위치한 세계 속의 다문화도서관이다. 지역주민의 80% 이상이 국제이주민인 환경적 특성을 고려해 그동안 두 도서관은 이주민의 한국사회 정착 및 적응, 이주민과 지역주민과의 사회통합을 위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 17개국의 원서 1만여 권을 비치한 두 도서관에서는 이주민들의 자조모임, 결혼이주여성의 독서지도사·구연동화자격증 과정을 열어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관산도서관

관산도서관은 1994년 안산시에서 처음으로 개관한 도서관으로 2010년에는 전국 최초로 전통한옥시설을 갖췄다. 솟을대문을 지나 한옥어린이자료실에 들어서면 '마당'에 발을 디딘 셈이 된다. '주초'와 '보', '기둥'으로 세워진 한옥, 마룻대를 가로지르는 '연목'과 창 아래 '머름'과 환상적인 '세살창'을 감상한다. 고개를 들면 '막새기와'와 그 끝 '추녀'를 볼 수 있어 전체적인 한옥의 얼개를 한눈에 읽을 수 있다.

안산시평생학습관작은도서관

안산시평생학습관에 마련된 작은 도서관으로 학습관 강의실을 이용해 독서치료, 청소년 인문학 강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매주 금요일마다 46석의 아늑한 다목적실에서'금요무비데이'를 운영하고 있다.

감골도서관

감골도서관에서는 바쁜 직장인들이나 책 읽기를 어려워하는 시민에게 실천 가능한 독서 계획을 지킬 수 있도록 '하루 10분 독서운동'을 펼치고 있다. 또, 인문학 강연을 꾸준히 열어 시민들이 인문학적 소양을 기르고, 독서와 가까워지는 계기를 마련한다. 「내가 사랑한 유럽 TOP 10」, 「그림자여행」의 저자 정여울(10월 24일), 「책은 도끼다」의 저자이자 광고인 박웅현(11월 3일)의 강연도 준비되어 있다.

상록어린이도서관

상록어린이도서관은 단원어린이도서관과 마찬가지로 북스타트 후속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6년 한 해 동안 '심리학'을 주제로 다양한 독서프로그램을 꾸준히 기획해 진행하고 있다. 초등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심리학 놀이터'를 8주 동안 운영해 친구관계에서 느끼는 다양한 감정을 이해하고, 문학작품 속 주인공을 통해 자기 안의 내면을 만나고 타인에게 공감할 수 있도록 돕는다.

다양한 도서관에서 강좌를 듣는 편이며, 작은 도서관에서도 부족한 책을 대출합니다. 책이음 서비스로 전문분야의 책을 대출 할 때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어요.

최운경(성포동, 45세)

본오3동만화작은도서관

지난 1월, 만화를 주제로 한 특화도서관으로 재개관한 본오3동만화작은도서관은 개관 첫날부터 시민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어린이학습만화, 교양만화, 웹툰 등 3,200여권의 만화책 중에는 드라마와 영화로 제작되어 대중에게 이름을 알린 강풀, 허영만, 윤태호 작가의 「그대를 사랑합니다」,「식객」,「미생」 등을 포함해 심리학·철학·인문학을 다룬 책들도 비치되어 있다. 어린 시절 만화방에서 보내던 추억을 되새기며 가족과 함께 만화를 즐기는 새로운 가족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성포도서관 _ 송세연(성포동, 17세)

집에서 가까워 이용이 편하고 최근 리모델링 공사 후 도서 정리가 예전보다 잘 되어있어 좋아요. 중고등 학생들이 어린이실에서 책 읽어주기 활동을 하고 있는데 많은 어린이들이 와서 들려주는 이야기도 듣고 그림책을 많이 보며 자랐으면 좋겠어요.

‘안산시 도서관 책 문화축제’, 독서의 계절 가을의 문을 열다

10월 1일,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호수공원 중앙광장에서 ‘제6회 안산시 도서관 책 문화축제’가 열린다. 안산시 도서관 책 문화축제(이하 책문화축제)는 안산시 전체 도서관이 함께 마련하는 책과 함께하는 시민문화축제로, ‘책’과 ‘인문학’을 주제로 즐겁게 독서하며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과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해 왔다. 올해 책문화축제는 안산시 시승격 30주년, 평생학습도시 10주년, 중앙도서관 개관 10주년을 기념하는 ‘2016 평생 학습박람회&도서관책문화축제’로 치러진다. 시민들에게 평생학습과 독서의 즐거움을 일깨우고자 강연, 전시, 체험프로그램과 감성 북콘서트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한다.

인문학 강연과 문화공연이 함께하는 ‘텐트인문학’

텐트인문학 부스에서는 인문학 강연과 문화공연을 만날 수 있다. 오전 10시에는 배준석 시인이 ‘아름다운 당신에게’라는 주제로 강연을 한다. 11시에는 마블러스 모션의 마임컬(마임+뮤지컬), 오후 1시에는 ‘2016 안산의 책–청소년부문’ 선정작 「오즈의 의류수거함」의 유영민 작가와의 만남이 있다. 2시에는 관산도서관 개관 23주년을 기념해 도서관과 시민을 모티브로 극단 동네풍경에서 창작한 ‘우리들의 도서관’을 공연하며 3시에는 ‘자녀를 행복하게 키우는 3가지 비결’이라는 주제로 한국부모교육연구원 이배영 원장의 부모교육이 이어진다.

이병률 작가와 인디밴드가수 요조(Yozoh)의 ‘감성 북 콘서트’

오후 4시에는 「끌림」, 「바람이 분다 당신이 좋다」 등 여행에세이로 유명한 이병률 시인의 최신작 「안으로 멀리뛰기 : 이병률 대화집」을 가지고 감성 북콘서트를 진행한다. 또한 ‘김제동의 톡투유-걱정 말아요, 그대’에 출연중인 홍대 인디가수 요조(Yozoh)가 함께한다.

어린이와 가족을 위한 공간, ‘그림책놀이터’

어린이와 가족이 책을 읽으며 쉴 수 있는 공간인 ‘책놀이터’, 영유아 ‘북스타트한마당’, 박성경 작가의 ‘꿈그리삶’, 그림책 체험관 ‘책벌레 속으로’로 구성된 ‘그림책놀이터’를 운영한다. 그림책놀이터는 「책벌레」의 저자 권재희 작가와 그림책전시기획자 김중석 작가가 어린이들이 마치 그림책 속으로 들어간 것과 같은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낸다.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이 가득한 ‘평생학습박람회&도서관체험부스’

‘안산시 도서관 홍보관’을 포함해 안산시 각 도서관과 지역서점, 출판사가 운영하는 44종의 흥미로운 체험부스와 ‘길거리학습관’ 등 평생학습박람회의 42개의 체험부스가 시민의 참여를 기다린다. 이날 책문화축제의 강연·공연·전시 등은 무료로, 일부 체험행사는 소정의 재료비로 참여 가능하다. 이병률 작가 북콘서트와 텐트인문학은 중앙도서관 홈페이지(http://lib.iansan.net)를 통해 사전 참가신청을 해야 하며, 각 프로그램 운영시간과 내용은 중앙도서관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 문의 : 중앙도서관(031-481-3862), 신선영 명예기자 _ woghkah@hanmail.net

책 읽는 안산 / 9월 두 번째 추천도서

이달의 주제 제6회 안산시 도서관 책 문화축제와함께 즐겨요!

아동

책벌레

저자 권재희 / **출판사** 노란상상

우리 동네 도서관, 아813.7-15-120에는 아주 작은 책벌레 한 마리가 살고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나방, 하루살이, 파리 등 다른 친구들도 함께 살고 있었지요. 다른 친구들은 높은 곳을 훨훨 날며 재미있게 놀았지만, 날지 못하는 책벌레는 함께 놀 수 없었어요. 하지만 책벌레는 마냥 외롭지만은 않았어요. 도서관에는 재미있는 책이 가득했으니까요.

청소년

오즈의 의류수거함

저자 유영민 / **출판사** 자음과모음

서울의 ‘밤의 세계’를 배경으로 기존 청소년문학의 한정된 학교, 학원, 집이라는 공간에서 벗어나 낮에는 불가능할 것 같은 이야기를 펼쳐낸 작품이다. 세상이 잠든 사이 의류수거함을 찾아다니는 주인공 ‘도로시’가 의류수거함에 버려진 일기장을 발견해 그 주인을 찾아주고 다양한 인물들을 만나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

성인

안으로 멀리뛰기

저자 이병률 / **출판사** 북노마드

시인이 좋아하는 술에 대하여, 약간 취기가 오른 듯한 연애감정이 묻어 있는 글에 대하여, 사람을 좋아하는 것에 대하여, 사람을 싫어하는 것에 대하여, 일과 쉼에 대하여…. 가급적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대화를 모으기 위해 많은 이야기를 버린 끝에 마침내 단 한권의 책으로 묶었다.

자료제공 _ 중앙도서관

범죄예방은 미리미리 우리 손으로

특수형광페인트 도포해 안심마을 만들어요

지난 9월 7일 선부3동은 안심마을 만들기 협의회와 자원봉사자, 단원구 경찰관 등 40여 명이 안심마을 만들기로 셉테드(CPTED) 사업을 실시했다.

셉테드(CPTED)란 구도심, 좁고 어두운 골목길, 낡고 칙칙한 담장, 방치된 공터 등 취약 지역의 디자인을 개선해 범죄 발생의 기회를 심리적·물리적으로 차단하고 지역 주민에게 심리적 안전감을 주는 범죄 예방 환경 디자인(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을 말한다. 범죄는 치밀한 계획 하에 저질러지기보다 물리적인 환경에 따라 발생 빈도가 달라진다는 가정에서 출발한 개념으로, 셉테드는 환경 설계를 통해 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 본다. 이에 안산시는 주택가 창문이나 배관 가스를 통한 침입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셉테드를 적용해 범죄 예방에 나서고 있다. 이번 셉테드 사업은 특수 형광 물질을 침입하기 쉬운 곳에 도포하는 작업이다. 먼저 창가나 배관 가스 창틀 먼지를 제거하고 특수형광물질을 도포했다. 이 형광물질은 6개월 동안 성능이 지속되며 그 곳을 통해 침입한 자의 옷이나 신발에 묻은 형광물질은 특수형광 후레쉬를 비추면 나타난다. 특수형광 페인트 물질은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고 자외선 특수 랜턴을 통해서만 보이기 때문에 범죄 발생 시 증거로 활용되어 범인 검거에 효과적인 물질로 알려져 있다. 이번 작업으로 범인 검거율을 높이는 효과와 함께 구역 내 안내판 설치를 통하여 범죄를 사전에 방지하고 범죄기회를 감소시키는 효과도 기대된다.

이번에 함께 작업을 한 김판숙, 김은화 봉사자는 “우리들로 인해서 범죄가 예방된다는 게 보람 있어요. 짬을 내서 안전마을 만들기에 참여하니 좋아요. 작업을 하면서 보니 마음만 먹으면 쉽게 올라갈 수 있겠단 생각이 드네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시도도 안 해보고 말만 하는 거랑은 차원이 다르죠. 사전 범죄 예방 시도가 된다니 참 잘한 거 같아요.” 라고 말했다. 선부중 2학년 학생 16명도 함께 참여했다. 삼삼오오 모여 꼼꼼히 잘 바르자며 안심마을 만들기에 동참했다. 작업이 끝나고 주변 한 바퀴 돌며 쓰레기를 주웠다. 지나가는 시민들은 무슨 작업을 하는지 궁금해 하며 관심을 가졌는데 사업의 목적을 듣고는 “안심마을 만들기 위해 힘써주셔서 감사하고 봉사해주시는 주민들 덕분에 더욱 안전한 마을이 되겠네요.”라고 활짝 웃으며 반가운 기색이다. 셉테드 사업은 2014년 각 구별로 1개 지역(사3동, 와동), 2015년 각 구별 2개 지역(사1동, 본오3동, 원곡본동, 선부2동), 2016년 현재 상록구 4개 지역(사2동, 본오1동, 본오2동, 부곡동)과 단원구 3개 지역(원곡1동, 선부3동)이 완료됐다. 올해 이동, 원곡본동, 와동, 선부2동이 추가로 진행될 예정이다.

☎ 문의 : 여성가족과(031-481-2209) 이선희 명예기자 _ iamyou70@hanmail.net

350명의 에디슨을 만나다!

‘안산사이언스밸리(ASV)과학축제’ 열어

안산인벤션(발명품), 과학교실 등 다양한 체험 전시 운영

오는 10월 22일과 23일, ‘2016 안산사이언스밸리(ASV) 과학축제’가 한양대학교 에리카캠퍼스와 안산사이언스밸리 일원에서 열린다. 안산시가 주최하고 경기테크노파크 · 안산시청소년수련관 · 한양대학교가 주관하는 안산사이언스밸리(ASV) 과학축제(이하 과학축제)는 ‘과학의 미래, 무한상상 실현!’이라는 슬로건으로 창의적인 작품 전시와 체험활동을 경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다. 과학안산, 첨단안산, 창의안산, 미래안산을 주제로 80개의 전시 · 체험부스를 운영하며, 드론대회, 3D 프린팅 페스티벌, 가족 건축올림피아드, 로봇분야 명사 특강, 공과대학 전공 설명회, 연구실 투어, 안산 30년 산업전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 ‘안산 30년 산업전’은 안산의 산업역사 30년을 돌아보며 안산시 시승격 30주년을 기념하고, 30년 후 안산의 모습을 그린 학생들의 과학상상화를 전시함으로써 안산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함께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한다. 주요 전시 · 체험프로그램으로 안산사이언스밸리 연구기관과 지역 내 유관기관의 첨단과학을 체험할 수 있는 ‘ASV 협의회 체험관’과 ‘유관기관 체험관’, STEA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rt, Mathmatics) 체험형 ‘안산생활과학교실’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첨단 산업기술 소재 · 적용원리를 실험하고 시제품을 제작하는 ‘주니어공학기술교실’이 운영된다. 안산시 대표기업과 학생들과의 콜라보레이션 ‘안산인벤션’과 우드락을 활용해 미니 건축물을 제작 · 심사하는 ‘가족 건축올림피아드’도 주목할 만한 프로그램이다. ‘안산인벤션’은 청소년이 지역 내 우수기업의 보유기술 및 제품에 관한 강의를 듣고 과학원리를 탐구하여 자체적인 과학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해 체험부스를 운영하는 방식으로, 청소년들이 산업현장의 기술력과 과학 원리를 생생하게 느끼고 배우는 과정에서 공단을 배후로 성장한 안산시의 정체성을 되새기며 자부심을 갖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양대학교와 싱가폴국립대가 진행하는 ‘가족 건축올림피아드’는 2인 이상 5인 이하의 가족 50팀의 사전 예약과 현장 접수를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재미있는 화학교실’과 ‘연구실 투어’는 사전 예약한 중 ·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연구실 투어 및 화학실험을 진행한다.

22일(토) 오후 2시에는 안산시청소년수련관과 한국공학한림원이 공동 진행하는 ‘공과대학 전공설명회’가, 23일(일) 오후 2시에는 한양대 한재권 교수의 로봇 특강이 열린다. 이번 과학축제는 과학기술 혁신 클러스터인 안산사이언스밸리(ASV)의 우수성을 알리고, 청소년과 시민이 최첨단 과학의 세계를 만끽하며 창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우수 과학인재 양성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 문의 :안산시 산업정책과(031-481-2851)
신선영 명예기자 _woghkah@hanmail.net

원곡동 시장풍경

안산시 승격 30년

안산의 옛 모습 속에는
정겨움이 있고 변화가
있고, 또 아쉬움도
들어 있습니다.
안산이라는
이름으로 1,000년,
시로 승격 되어
또 **30년을 이어 온 안산.**

바뀌어 가는 안산의
모습이 누군가에게는
많이, 또 누군가에게는
좀 적게 담겨있을지
모르지만 안산 시민은
모두 같은 추억으로
연결되어 있기도 합니다.
2016년은 사진으로
남은 **안산의 옛 모습을**
돌아보며 우리의
오늘을 자축하고,
100년 뒤 안산의 모습을
그려보는 **의미 있는 해**로
남을 것입니다.

안산선(금정-안산)복선전철개통

안산시청

사리포구

강원 여객버스 승차모습

안산시 **역동의 30년** 발판으로 **도약의 30년** 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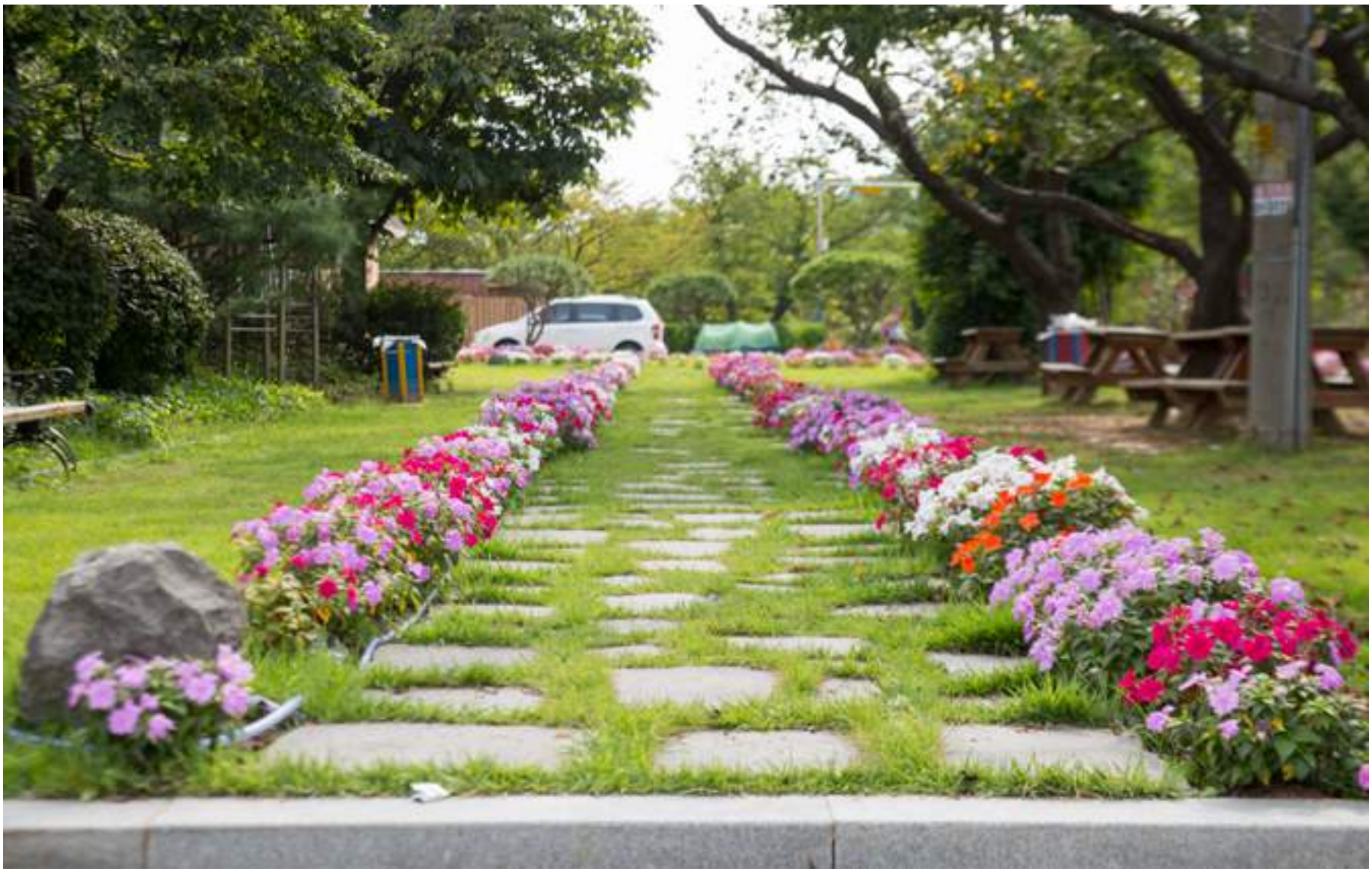
시 승격 30주년 축하 **‘시민의 날 기념식’** 열린다

2016년 올해는 안산이 서해안의 작은 농어촌 마을에서 1만여 기업을 품에 안은 산업도시로 탈바꿈한 지 30주년이 되는 해이다. 오는 9월 30일 안산문화예술의전당 해돋이극장에서는 시 승격 30주년의 의의를 담은 ‘시민의 날 기념행사 ’가 열린다.

이날 행사에는 안산시민을 비롯한 시장, 시의회의장, 국회 · 도 · 시의원, 직능 · 사회단체 회원, 국내 · 외 자매결연도시의 축하 방문단 등 1천여 명이 넘는 각계각층의 사람이 참석할 예정이다. 대한민국 산업발전의 한 축을 이뤄 온 안산시민의 저력과 삶의 자취는 ‘안산 30년 나의 30년’이라는 주제의 영상물로 제작돼 기념식에서 상영된다. 또한 사회·문화·경제 부문에서 시의 발전에 기여한 시민에게 감사의 의미를 전하는 시상식도 함께 열린다. 문화도시 안산의 격을 높인 시민에게 수여하는 ‘안산시문화상’과 상록수 최용신 선생의 정신을 계승한 시민에게 드리는 ‘최용신봉사상’, 경영환경을 개선해 작지만 강하게 기업을 키워온 기업인을 위한 ‘중소기업대상’ 등 안산시장 상이 수여된다.

안산문화예술의 전당 야외광장에서는 야생화꽃씨를 풍선에 담아 희망과 함께 날려 보내는 시민참여 퍼포먼스가 열리며, 전당 로비에서는 ‘안산 30년의 기록’ 사진전시회가 열려 시 승격이후 변모한 안산의 모습과 역사를 한눈에 보여준다.

백미란 명예기자_whity0218@naver.com



부곡동 미니수목원으로 가을나들이 어때요?

청명한 가을날, 부곡종합사회복지관 옆 미니수목원(상록구 부곡동 711번지)을 찾았다. 성호공원 산책로와 잇닿아 있는 미니수목원은 부곡동 양묘장 공간을 개방해 만든 녹지공간이다. 미니수목원에 들어서는 순간, 나는 동화 속 주인공이 된다. 도로가에서 대여섯 걸음 들어왔을 뿐인데 눈앞에 새로운 세상이 펼쳐진다. 차 소리도 들리지 않는 비밀스런 정적이 감도는 곳에서 구름이 흐르는 소리가 들릴 것만 같다.

분홍 꽃송이가 소담스런 배롱나무 가지에 손을 대니 꽃들이 간지럼을 타며 하롱하롱 떨어진다. 한여름 더위에도 피고지기를 거듭하며 백일 동안 꽃을 피워냈을 백일홍은 서양 풀꽃에 밀려 지금은 목백일홍이라 불린다지…. 파란 하늘에서 꽃잎이 선녀의 날개옷처럼 하늘거린다. 떨어지는 꽃잎을 따라가던 눈길이 화단 아래에서 멎는다. 둥근소나무를 배경으로 주황색 꽃무릇 네댓 송이가 병정처럼 나란히 서서 방문객을 맞는다. 왼쪽으로 이어지는 꽃길은 버진 로드의 꽃장식을 닮았다.

그 길이 멋쩍어 반대방향으로 걸었다. 아들과 함께 산책하던 아버지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뒤돌아섰다. 눈앞에서 사라진 아이를 찾는 눈빛이 황망해 나도 걸음을 멈춘다.

미로정원의 편백나무 뒤에서 새어나오는 웃음을 감추려 입막음을 하고 서 있는 아이와 눈이 마주친다. 내 눈을 비껴간 아이는 아버지의 놀란 얼굴에 '까르르' 웃으며 몸을 드러낸다. 아이의 웃음소리에는 행복이 넘친다.

연못가를 에두르는 맷돌 박힌 길에서 징검다리를 건너듯 허둥대다 초록 잔디에 발을 빠뜨렸다. '첨벙' 소리에 고개를 드니 연못의 수련 잎이 수런거린다. 꼬마가 나를 쳐다보며 웃는다. 아이의 얼굴엔 장난기가 그득하다. 아이 뒤쪽으로 연못 주변에서 수크령이 강아지 꼬리처럼 예쁜 이삭을 흔들어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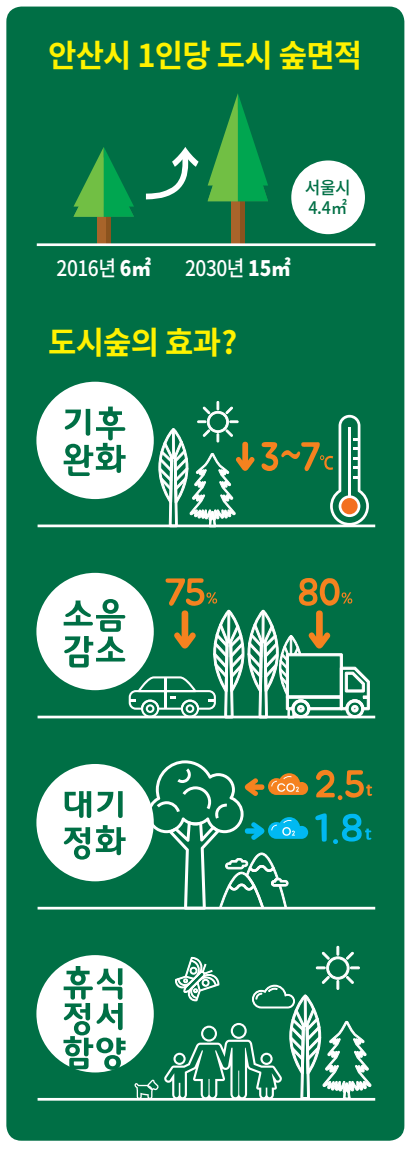
큰 나무 아래에서, 이야기정원에 우뚝 선 아치형 퍼걸러에서, 연못의 다리 위에서 꽃무늬 양산을 쓴 어르신이 멈추어 설 때, 소슬바람이 분다. 바람에 실려 가을이 내게로 왔다.

신선영 명예기자 _ woghkah@hanmail.net

MADE IN 숲

2016년 한 해 동안 숲 이야기를 연재한다.
겨울 숲, 사색하기 좋은 숲, 운동하기 좋은 숲, 데이트하기 좋은 숲, 가족나들이하기 좋은 숲, 힐링하기 좋은 숲, 생태 숲, 아파트 숲 등 숲의 다양한 기능과 추억을 담는다.

안산시는 숲의도시입니다



제18회 단원미술제

단원미술제 기간 동안 **시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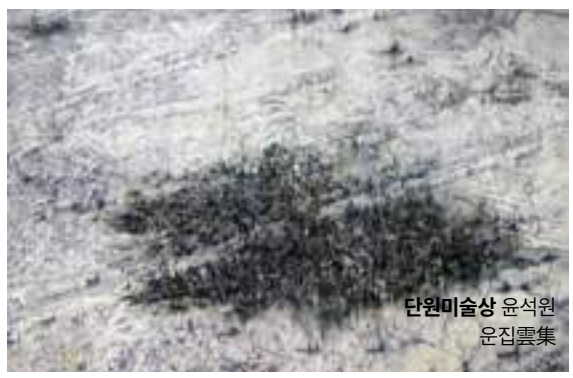
단원미술대상 제미영
가화(家花)-집과 꽃에 깃든 소망

단원미술제가 오는 10월 7일부터 10월 29일까지 단원미술관 제1관과 제2관에서 열린다. 단원미술제의 시상식 및 개막행사는 10월 7일 단원미술관 야외 행사장에서 진행된다. 더불어 단원미술제 선정작가 전시와 함께 문화예술단체와 지역의 작가들과 연계하여 어린이놀이마당, 미술워크숍, 아트마켓, 야외특별전 등 다양하고 입체적인 현장 프로그램들이 마련된다. 또한 '미래의 단원 김홍도'를 꿈꾸는 어린이들의 창작 공모전인 어린이미술공모전도 개최된다.

평면부분 제미영, 영예의 단원미술대상 차지

400여 명의 우수한 작가들이 2천여 점의 작품 응모

제18회 '2016단원미술제'의 최종 심사결과 평면부문의 제미영(41) 작가가 영예의 단원미술대상을 차지했으며, 박기훈(36)·윤석원(33) 작가가 각각 단원미술상에 선정되



단원미술상 윤석원
운집雲集

었다. 심사위원장을 맡았던 성백주 화백은 제미영 작가의 작품에 대해 "전통과 현대적 미감의 아름다운 조화로움을 선보인 조형기법이 탁월하다는 점에 높은 평가를 받았다. 가령 메인작품으로 제시한 <가화(家花)-집과 꽃에 깃든 소망>이란 작품제목에서도 보이듯, 페인팅 기법과 바느질·꼴라주·비즈 등의 다양한 재료를 통해 화려하면서도 통일된 미감을 유지하는 노련함도 돋보였다. 이는 한국적 정체성을 활용한 현대미술의 가능성을 기대해볼 만한 대목이라 여긴다."고 강조했다. 제미영 작가는 "한국의 전통조각보 방식을 활용한 바느질 꼴라주라는 새로운 방식을 작품에 표현해 왔다. 우리나라 현대미술의 중추적인 역할로 급부상하고 있는 단원미술제에서 인정을 받았다는 점에서 더욱 힘을 얻고 기쁘다. 앞으로도 전통에 대한 정체성을 어떻게 현대적 미감으로 해석해갈 것인가에 대한 화두를 안고 최선의 활동으로 역량을 키워가겠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단원미술상에 선정된 박기훈(36) 작가는 대도시 야경을 배경으로 서로 끌어안은 북극곰가족을 등장시켜 '공존(共存)'이란 중심 테마를 잘 살려 눈길을 끌었다. 반면 윤석원(33) 작가는 구름처럼 몰려든 인물군상(群像)을 힘이 넘치는 무채색 톤의 회화기법으로 표현해 마지막까지 경합을 벌였다. 올해의 단원미술제 기간 동안에는 수상 작가들의 훌륭한 작품세계와 미래의 단원을 꿈꾸는 어린이의 작품, 다양한 체험 이벤트들이 어우러져 관람객과 시민들이 주인공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장이 될 것이라고 관계자는 전했다.

☏ 문 의 : 단원미술관(031-481-0503)
이선희 명예기자_iamyou70@hanmail.net

'그때를 아십니까?'

수인선 협궤열차 **추억의 사진전**

오는 **10월 17일 안산천 교량하부에서 열려**

'수인선 협궤열차 추억의 사진전'이 오는 10월 17일 오후 4시부터 안산천 교량하부(KT~ 환경교통국 맞은편)에서 열린다. 이번 사진전은 우리의 기억에서 잊혀진 것들을 재조명하고 시민들과 함께 추억하는 시간으로 만들어진다. 식전 공연으로 시립합창단의 공연이 열리고 4시부터 사진전 개회식이 열린다. 협궤철로 걷기, 행사장 라운딩이 끝나면 단원 공원樂 음악회가 1시간 동안 열린다.

60점의 협궤열차 추억의 사진이 전시되며 브라운관 TV와 DVD플레이어에서는 달리는 꼬마열차가 등장하는 협궤열차에 관한 동영상도 상영한다. 또한 협궤열차 개통부터 폐선이 되기까지 스토리를 이미지와 그래픽 등을 활용하여 간결하게 재구성한 협궤열차 이야기도 만날 수 있다. 더불어 80점의 구절초 시화전이

함께 열린다. 부대행사로 오후 3시 30분부터 6시까지 추억의 교복 대여, 엽서 그림 그리기, 추억의 과자, 구절초 차, 구절초 떡 나눔 행사, 황토 염색 손수건 만들기, 구절초 미니 화분 나누기 등 체험행사도 이뤄진다.

*수인선 : 1937년 8월 6일에 개통된 수원시에서 안산시, 시흥시를 지나 인천광역시까지 오가는 철도노선

☏ 문 의 : 단원구청 건설행정과(031-481-6443)
이선희 명예기자_iamyou70@hanmail.net

일상의 평범한 쓰레기가 작품이 되다

반쪽이의 상상력박물관, 안산문화예술의전당서 10월 16일까지 열려

코끼리

안산문화예술의전당에서 10월 16일까지 '반쪽이의 상상력박물관'展이 열린다.

시사 만평가로 알려진 최정현 작가는 입체 만화, 곧 만화를 조각으로 표현하는 '만조'작가다. 영국 자연사박물관에서 자연물과 일상의 도구를 비교한 전시품을 보고 영감을 얻어 고물을 모으기 시작해 고물과 자연물을 이용한 이색적인 작품을 만들어냈다. 이번 '반쪽이의 상상력박물관'에서는 작가 특유의 상상력과 재치, 풍자가 담긴 대표작 160여 점을 선보인다.
최정현 작가는 작은 풀벌레부터 거북이, 사자 등 자연의 이야기를 비롯해 사람에 대한 관심, 세상 돌아가는 모습을 풀어낸다. 쓰다 버린 주걱이나 붓은 새의 일부가 되고, 플라스틱 라이터는 풀무치의 몸이 된다. 숟가락과 포크는 새싹으로, 하얀 일회용 접시는 천사의 날개로, 화장실용 슬리퍼는 카멜레온으로, 일회용 철사 옷걸이는 안경이나 화살표, 청바지 등 수십 가지 모습으로 탈바꿈한다. 자동차 폐타이어도 예외는 아니다. 그 속에는 풍자와 해학이 가득하다.

"사람과 인연이 닿아 메시지를 담고 있는 재료를 찾아 그걸 조합해요. 제가 만든 펭귄은 빨간색이에요. 지구온난화 때문에 집이 다 녹아서 열 받은 모습이죠. 몸체로 쓴 빨간 소화기는 불을 끈다는 의미이고, 부리는 지구를 할퀴는 포크레인 발톱을, 날개는 자동차 브레이크 패드를 달았어요. 그만하라는 의미죠. 그만하라고 외치는 펭귄 입에는 나팔을 붙여주었죠."라며 작가는 '나와 너', 동식물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고민하는 시간 속으로 관람객들을 초대한다. 25년간 그려낸 시사만평의 저력은 고스란히 작품에 녹아있다. 볼펜과 화장실용 뚫어뻥으로 한국정치의 현실을 풍자한 <국회의사당>, 인터넷 익명성의 병폐를 다루기 위해 마우스와 키보드로 제작한 <네티즌>시리즈, 미군용 도시락과 철모로 만든 <미국을 먹여 살리는 장수거북> 등의 작품을 통해 현실 인식을 풍자적으로 담아내고 있다.

버려진 컴퓨터 부품인 키보드와 마우스만으로 코브라와 쥐를 형상화한 작품 <네티즌>. 네티즌은 수평적 민주주의를 정착시킨 온라인 군중이지만 익명의 탈을 쓰고 상대방을 무차별 난타하는 얼굴을 숨긴 온라인 폭력배이기도 하다. 자판과 마우스로 구성된 뱀과 쥐의 모습은 네티즌의 표독한 양면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악플 수류탄'은 군용 수류탄으로 죽는 사람보다 악플 수류탄으로 죽는 사람이 더 많다는 의미이며, '먹이를 기다리는 네티즌'도 같은 맥락의 작품이다. 이번 전시는 24개월 이상 관람 가능하며, 입장료는 어른·아이 5천 원, 단체 3천 원이다. 반쪽이 최정현 작가의 해설을 들을 수 있는 주말 전시를 놓치지 않기를…

항의하러 온 펭귄가족

☏ 문 의 : 안산문화재단 지역문화부 (031-481-0525)
신선영 명예기자_woghkah@hanmail.net

몸, 이야기, 상상으로 만나는 '공간'의 탄생

경기도미술관 꿈틀 상설교육전시 '공간의 발견'

내가 사는 공간을 다양한 방식으로 인식하고 기억할 수 있는 교육전시, '공간의 발견'이 경기도미술관 '꿈틀'에서 내년 8월 27일까지 12개월간 열린다. 올해는 '공간'을 주제로 어린이와 청소년들도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작품을 소개한다. '공간의 발견'은 그렇게 조금 다른 시각과 상상으로 내가 머무는 곳을 새롭게 체험하고 기억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이번 전시는 세 가지 섹션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신체를 매개로 공간을 새롭게 인식하고 발견하려는 예술적 시도를 담은 작품이다.
장성은 작가의 <비스콘티 길>은 사람의 몸을 단위로 삼아 길의 너비를 측정하고 그 순간을 사진으로 기록했다. 그렇게 해서 알아낸 비스콘 길의 너비는 '19명'이다. 여기 참여한 사람이 달라지면 이 길의 너비도 달라질 것이다. 공간에 대한 경험은 그렇게 상대적으로 다가온다. 두 번째 섹션은 도시, 거리, 집 등 삶의 터전이 되는 공간에 대한 여러 의미와 이야기를 발견할 수 있는 작품으로 꾸며졌다. 이선민 작가의 사진 작업은 집 안에서 펼쳐지는 제삿날 풍경을 담담하게 기록한다. 남자들은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 방 안에 들어가 제사를 지내고, 제사 음식 준비를 도맡았을 여자들은 방 안에 들어가지 못한 채 물끄러미 앉아 있다. 작가는 현대 가정에 여전히 존재하는 가부장 문화의 불편함을 드러낸다. 세 번째는 섹션은 상상의 힘으로 창조된 환영과 가상의 공간을 다룬 작품들로 구성 됐다. 원성원 작가는 'Tomorrow 시리즈'를 통해 분명히 존재하는 현재의 시공간과 기록된 사진들을 이어 붙여 유쾌한 상상의 세계를 만들어 낸다. 또, 전준호 작가는 북한 화폐를 소재로 기발한 상상력을 발휘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북한 사회의 흐름을 풍자한다.
전시 마지막에 만나는 '블록 공간: 상상쌓기'는 블록을 이용해 벽에 공간을 쌓거나 상상의 공간을 자유롭게 만들어 볼 수 있어 전시를 더 적극적으로 즐길 수 있다. 미술관에서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순간이동 경험, 경기도미술관 '공간의 발견' 전시에서 즐겨보자.

• **전시기간** 2016년 9월13일~ 2017년 8월 27일
☏ 문 의 : 경기도미술관 031-481-7000

장성은_비스콘티길

송보림 명예기자_treehelper@naver.com

지역과 함께 상생하는 연극인 김종숙 씨

“할머니가 되어서도 실버극단에서 활동할 거예요”

안산의 공연장에서, 3.1절 등 행사장에서, 마을 곳곳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활동하는 연극인 김종숙 씨(45세, 월피동) 만났다. 서울예대 연극과를 졸업하고 10여 년 동안 평범한 주부로 지내다 2008년에 배우로서의 꿈을 위해 다시 연극을 시작했다는 김종숙 씨. 그녀는 중2때 연극반 활동을 하면서 내성적인 성격을 변화시켰고, 당시 국어교사였던 김종만 선생님(현 교사연극협회 이사장)의 영향으로 연극을 전공하게 되었다. 좋아하는 일이었지만 치열한 경쟁 속에서 극단이나 방송으로 나아가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졸업 후 2년여 동안 연기학원 강사로 근무하다가 지금의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고 평범한 주부가 되었다. 결혼 당시 남편에게 ‘마흔에는 모노드라마라도 무대에 올려보겠다’라고 다짐을 했던 것이 조금 일찍 이루어졌다. 꿈을 이루지 못했다는 허전함이 그녀를 안산의 극단으로, 대학로로 이끌었고, 마침내 극단 <이유>를 창단해 2013년 7월 창단공연을 했다.

주변의 걱정과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움직이게 한 건 ‘공연을 올려보겠다’는 열정이었다. 이후 배우들의 개런티를 챙겨주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 씨는 연극인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연극인육성사업을 제안했고, 시의 지원으로 <가우자리>를 운영하고 있다. 제작비와 연출가, 극작가, 참여자 5명의 최저임금을 지원받으며 연극 이외에도 마을공방, 마을벽화사업을 펼친다. 극단 <가우자리>는 12월 1일과 2일, 안산문화예술의 전당에서 ‘연극으로 함께하는 힐링콘서트(가제)’에 참여한다. 또, 안산문화재단의 ‘왁자지껄 우리동네’ 공모 사업으로 만들어진 지역공동체 <월피해피바이러스>의 대표로 활동하며 지역아동센터 초등학생 극단 <올망졸망>, 지역아동센터 연합 청소년극단 <우연(우리함께 연극하자)>을 이끌고 있다. 연극 이외에도 마을공방, 비누공예, 그림으로 만나는 인문학 강의 등을 열고 있다.

김 씨의 이런 활동은 마을장터로도 확산되고 있다. 지난 9월 24일에는 예술광장상인회와 함께 마을장터를 열어 지역 상권을 살리는 데에도 한몫을 하고 있다. 마을장터가 주변에 알려지면서 공연팀과 셀러 섭외가 자연스레 이루어지며 안산시 6개 학교의 ‘배.나.단(배우고 나누는 봉사단체)’도 참여하는 등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그녀는 자칭 ‘월피동 붙박이’로서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이 크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연극이 발화점이 되어 동네가 좋은 마을로 변해가는 것이 신난다고 한다. 또한, 안산시내 중학교에서 자유학기제 진로교사로 중학생을 만나고, 광덕초등학교에서는 인성발달프로그램으로 연극놀이수업을 하면서 연극으로 인한 긍정적 효과를 실감하며 보람이 된다고 한다. “무대경험을 통해 자존감이 향상되기도 하지만 연극은 인간의 내면을 들춰내고 표현해내는 작업이기 때문에 작품 속 인물과 친해져야하고 생각을 많이 하는 작업입니다. 인간관계, 타인의 입장이 되어 주변을 돌아보게 되는 연극은 다른 예술이 그렇듯 인성을 키우는 데 아주 좋은 교육”이라고 말한다. “안산에는 타 도시에 비해 극단도 많고 공연장 시설과 공연 여건도 매우 좋아요. 안산에서 활동하는 역량 있는 극단들과 함께 연극제 ‘ASAC공연예술제’ 등 선의의 경쟁을 통해 안산의 연극문화가 발전하고 ‘연극 하면 안산’이라는 소리를 들었으면 좋겠다.”는 김종숙 씨는 “무대 위에 있을 때 살아 있음을 느낍니다. 할머니가 되어서도 실버극단에서 연극하는 할머니가 되겠다.”며 미소를 짓는다.

‘함께 꾸는 꿈은 이루어진다’고 했던가. 그녀의 꿈이 마을과 안산이 함께 꾸는 꿈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본다.

신선영 명예기자 woghkah@hanmail.net

안산 늘해랑 봉사단 회장 백만석 씨

‘봉사가 운명이 되어버렸습니다’

추석 연휴가 끝나갈 무렵 봉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백만석 씨(68세, 늘해랑 봉사단 회장)를 어렵게 만날 수 있었다. 현재 신안산대학교에서 보안관리직(경비)으로 20여 년간 근무하고 있는 백만석 씨는 월남전에 참전, 고엽제 후유증으로 언어지체장애(1급)를 안고 생활하고 있다.

어렸을 때부터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힘든 생활을 겪은 터라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그냥 지나치는 일이 없게 된 그는 장애인 복지관에서 장애인 활동도우미로 처음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같은 장애인이라는 안타까운 마음에 그냥 지나치지 못했던 것이 지금까지 봉사활동을 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봉사하러 가서 술 담배로 얼룩진 방안을 보면 예전 아버지 생각이 나서 더 돕고 싶었다는 그는 “가정도, 직장도, 봉사도 모두 행복한 마음 없이 의무감으로 한다면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가 유공자로서의 자부심도 가지고 있고 내가 받고 있는 작은 혜택도 되돌려 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사회도 밝아지고 여유로와 진다고 봅니다. 어린 시절 어려움이 많았을 때 조금이라도 여유가 생기면 반드시 일을 해서 이웃을 돕겠다고 다짐했던 작은 소망이 부족하더라도 실천으로 옮겨진다는 것에 늘 감사함을 느낍니다. ”라고 했다. 다양한 봉사활동으로 안산시장상을 비롯하여 많은 상을 수상한 경력을 갖고 있어도 항상 부족하다고 말하는 백만석 씨. 지금도 24시간 경비일을 하면서 쉬는 날이면 독거노인 무료급식, 장애인 활동보조, 지체장애인 가사도우미, 교통장애인협회활동, 구세군 자선냄비 등 손길이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지 찾아 나선다.

그가 머무는 자리가 밝게 빛나기를 응원해 본다.

김선 명예기자 _ itsumo9011@naver.com
김진국 사진기자_ hanmarus@naver.com

새로운 희망과 행복, 도약 안고 달리다!

‘2016안산희망마라톤대회’

사진설명_안산시 홍보관에서 꼬마 어린이가 시승격 30년을 기념하는 축하메세지를 붙이고있다.

2016안산희망마라톤대회가 지난 9월 25일 와~스타디움에서 열렸다. 2011년 처음 시작해 올해 6회째인 대회는 시 승격 30주년을 맞아 지난 30년 동안 안산이 이룩해온 발전을 발판으로 미래를 향한 새로운 도약과 이웃 간의 소통으로 행복한 안산이 되기를 바라는 희망을 담았다.

안산시와 경기일보가 공동주최하고 안산시체육회, 안산시육상연맹이 공동주관한 이번 대회에 전국의 마라톤 동호인들과 가족, 동료, 친구, 이웃, 자원봉사자까지 1만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했다. 유모차에 아이를 태우고 5㎞ 달리기에 나선 젊은 부부, 고향에서 올라온 친구와 함께 하프코스에 도전한 중년 남성, 두 아들과 10㎞에 도전한 삼부자 등 모든 사람들의 표정에는 건강미와 즐거움이 넘쳤다. 이날 대회는 올해 신설된 42.195㎞ 마라톤 풀코스에서 김용범(수원사랑마라톤)씨가 2시간50분50초로 1위로 결승선을 통과했다. 2위는 박성진(강남차병원)씨가 2시간55분01초로, 3위는 최규식(인천마라톤)씨가 2시간55분46초로 차지했다. 이번 대회 하프코스 여자부 1위인 윤기난 씨와 5㎞ 여자부 1위 김은화 씨는 역대 안산마라톤대회에서 다양한 코스에서 입상한 경력이 있다. 저녁마다 시낭운동장 25바퀴를 돌고 주말에는 노적봉 산책길을 달린다는 윤기난 씨는 남편이 함께 뛰어서

윤기난씨

든든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달릴 생각이라고 했다. 또 교통사고 후유증을 극복하기 위해 마라톤을 시작한지 9년째인 김은화 씨는 마라톤 덕분에 건강을 되찾았다. “미 개통도로와 노적봉 등 하루 10㎞를 달리는데요. 그 덕분에 비염도 없어지고 몸도 날씬해졌어요. 이번 대회 1위 입상까지요. 아주 기분 최곱니다.” 라고 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자동차, 세탁기, TV, 냉장고 등 다양한 경품 수 백 가지가 추첨을 통해 참가자들에게 제공됐다. 고향친구와 함께 하프코스에 참가한 천인화(61세 · 경기도 시흥시) 씨는 1등 경품인 자동차를 받았다. “지난밤 꿈에 군에서 별 셋을 달았는데 이렇게 좋은 일이 생기네요. 친구가 서운하지 않도록 나눌 생각입니다.”라며 함박웃음을 지었다. 2016안산희망마라톤대회는 남녀노소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참여해 마라톤 완주의 뿌듯함과 즐거운 추억을 함께 누렸다.

백미란 명예기자_whity0218@naver.com

자녀에게 물려줄 공유자산 ‘시민프로축구단’ 만들게요

안산시, 시민구단 창단을 위한 설명회 열어

☏ 문 의 : 안산시 체육진흥과(031-481-2992)

백미란 명예기자_whity0218@naver.com

안산시는 지난 9월 6일 상록구청 시민홀에서 ‘안산 시민프로축구단 창단을 위한 설명회’를 열어 사업추진 배경과 창단 관련 사항 등을 알리고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안산시민 200여 명이 참석해 시민구단 창단 배경과 비전을 들었다. 전덕주 과장은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시민구단은 우리 자녀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시민에게 정주의식을 고취시켜 화합으로 이끄는 공유자산이 될 것”이라며 “프로스포츠산업이 가져오는 상승효과로 유소년 축구단 육성과 축구클럽의 활성화, 스포츠중심지로서의 안산시 이미지 구축으로 안산의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산시는 지난 2014년 3월 경찰청 프로축구단을 지역연고지로 안산에 유치해 무궁화프로축구단으로 운영해왔다. 올해 6월 경찰대학이 인천에서 아산으로 옮겨가면서 시민프로구단 창단준비는 가시화됐다. 현역 경찰신분인 선수들로 이뤄진 무궁화프로축구단도 연고지를 아산으로 이전하는 것을 확정했기 때문이다. 안산시는 무궁화축구단과 2012년 할렐루야축구단을 운영하면서 노하우를 쌓아왔고, 일본의 반프레 고푸 팀 등 국내외 여러 구단의 사례를 보며 구단의 운영형태와 현황 등에 대해 살펴왔다. 이와 더불어 안산의 사회·환경적 특성에 적합한 운영 모델을 찾으면서 시민프로구단 창단을 위한 준비를 지속적으로 해왔다. 안산시 관계자는 “운영비를 최소화한 효율적인 작은 구단으로 시작해 K리그 클래식 승격과 자생구단 실현이라는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안산시민프로축구단을 운영할 것”이라며 “앞으로 시민프로축구단 창단을 위해 시 의회와 긴밀히 협조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산시민프로축구단 창단은 9월 지방재정 투자심사위원회와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상정과 오는 10월 프로축구단지원조례 일부개정 추진을 앞두고 있다. 조례가 개정되면 11월 2017년 의회 본예산 상정 후 시민구단 형태로 조직이 변경돼 안산시민프로축구단 안산FC로서 2017년 3월에 개막하는 K리그에 참가하게 된다. 시는 안산FC의 새로운 선수단을 울산 현대미포조선 우수선수와 다문화도시 안산을 위한 외국인선수 영입 등을 통해 꾸릴 계획이다.

주민세 이렇게 쓰겠습니다

올해 주민세가 큰 폭으로 인상되었음에도 성실히 납부해주신 납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민세(개인균등분)는 매년 8월에 개인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치경비를 부담하게 하는 회비적 성격의 세금입니다. 우리 시는 1999년 주민세 4천원을 조례로 정한이래 그 간의 물가인상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17년간 동결하여 오다가, 올해 전국 지자체와 더불어 세율 현실화를 실현하고자 불가피하게 인상하였습니다. 이번 주민세 세율 인상의 목적은 날로 증가하는 지방재정 수요 충당을 위한 목적이었던 만큼 **올해 인상된 주민세 확보재원은 주민참여예산 요구사업과 복지 예산에 우선 반영하여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산시는 시민과 함께 소통하고 시민과 함께 상생 발전하는 지방세정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아무것도 밝혀진 것 없어. 세월호 특조위 활동 보장돼야”

세월호 특별법 개정과 특검 촉구 릴레이 단식 이어져

세월호 유가족과 특조위, 시민들이 릴레이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서울 광화문 광장을 찾았다. “그동안 할 수 있는 건 정말로 다 해봤어요. 이제 진짜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남지 않아 단식을 합니다.” 지난달 23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재욱엄마 홍영미 씨가 단식농성을 시작하며 한 말이다. 왜 부모님들은 2년 전 여름처럼 다시 곡기를 끊었을까. 아직 세월호의 침몰 원인조차 제대로 밝히지 못했는데, 정부 방침에 따라 세월호 특조위 활동이 강제 종료될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 현재 세월호 인양작업이 진행 중에 있는데, 선체 조사조차 시작 못한 상태에서 세월호 특조위까지 해체되면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힐 수 있는 동력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 지난 2일 세월호 3차 청문회에서 성호누나 박보나 학생은 “특조위도 인양도 침몰하고 나면 우리는 긴 시간을 어떻게 버티며 살아가야할지 막막하고 두렵습니다. 이번 청문회가 마지막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만들어주신 특별법과 특조위가 침몰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어느덧 광화문 광장이 집이 돼 버린 유가족들 곁에는 작은 힘이라도 보태고자 전국에서 찾아온 많은 시민들이 위안이 되고 있었다. 광화문 세월호 농성장 중앙에는 학교 책걸상 10개에 천사인형을 올려놓은 ‘기억의 자리’ 전시를 볼 수 있다. 그 책상에 붙어 있던 글귀 하나가 눈에 띄었다. “아이들의 빈자리는 우리의 생명입니다.” 문득 한 시민이 한 말이 머리에 맴돌았다. “문제의 원인을 제대로 밝혀내지 않으면 이런 참사는 또 반복된다. 결국 언젠가 그 고통을 우리가 겪을 수도 있다. 지겹다는 말을 하기 전에 우리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걸 한번쯤 생각해봤으면 좋겠다.”

송보림 명예기자_treehelper@naver.com

‘우리 함께 해요’

2016 부곡동 추석맞이 사랑의 쌀 나눔 행사

지난 9월 7일 부곡동 주민센터에서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추석 맞이 사랑의 쌀 나눔 행사’를 열고 이웃과 함께 풍성한 정을 나눴다.이날 행사에는 부곡동 주민자치위원회를 비롯하여 각계각층의 관내 업체들이 후원한 쌀 400여 포(10kg)를 통장들과 함께 부곡동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위원들이 직접 지역을 돌아다니며 소외된 이웃에게 쌀을 전달했다. 특히 뿌리유치원 원아들의 고사리 같은 손으로 한 줌 한 줌 모아온 쌀을 가져와 기부하는 모습은 자리에 참석한 많은 사람들에게 다시 한 번 따뜻함을 느끼게 해주는 시간이었다. 이희평 부곡동장은 “해마다 하는 행사이기에 앞서 주민들 스스로가 조금씩의 보탬으로 서로 나누고 함께 하는 것을 보면 뿌듯하고 자랑스럽습니다. 행사 규모의 중요성보다 같이 나눌 줄 아는 부곡동이 되어 기쁩니다.”라고 했다. 부곡동은 1994년 이후 계속적으로 설, 추석 연말 때마다 지역단체 및 협력업체들과 사랑의 쌀 나눔 행사를 추진해 오고 있다.

김 선 명예기자 _ itsumo9011@naver.com
김진국 사진기자 _ hanmarus@naver.com

「4.16세월호참사 안산시 추모사업 협의회」 제4차 회의 개최

안산시는 9월 26일 시청 제1회의실에서 ‘4.16세월호참사 안산시 추모사업 협의회’ 4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그동안 회의에서 제기되었던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친숙한 추모시설”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했으며 추진과정에서 다양한 시민의견 수렴 방안을 마련할 소위원회도 구성했다. 지난 7월 6일 유가족, 지역대표, 전문가 등 24명으로 출범한 안산시추모사업협의회는 그동안 운영규정안 제정과 추모사업에 대한 전문가 강의 등 워크숍을 진행했으며, 앞으로 추모시설 내용은 물론 입지후보지에 대해서도 다양한 시민의견을 모아 세월호 참사 유가족의 아픔을 모두가 공감하는 방안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문 의 : 세월호수습지원단(031-481-3318)

폐 현수막으로 장바구니 선풍기덮개 만들어요

자원 재활용으로 환경보호와 일자리 창출까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의 하나로 추진되는 선부2동 ‘우리 동네 에코하우스’가 폐 현수막을 활용한 생활용품 제작으로 환경보호와 일자리 창출까지 1석2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우리동네 에코하우스는 3개월씩 6명의 일자리사업 참여자가 근무하면서 장바구니, 선풍기덮개, 에코 백 등을 제작한다. 이곳에서 만들어진 제품들은 타 시군에서 안산으로 이사 오는 주민의 전입선물로 제공되고, 주민증을 처음 발급받은 청소년, 저소득 주민, 아이를 출산한 주민의 축하선물로 활용된다.
지난 5월에는 안산에서 열린 ESP 아시아총회에서 ‘숲의 도시 안산’을 주제로 제작한 에코 백 300개를 제공해 해외 방문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9월 4일 안산문화예술의 전당 PNLG 국제콘퍼런스에서도 ‘해양관광도시 안산‘을 주제로 에코 백 400개를 제작 · 제공해 참가자들의 좋은 반응을 받았다. 우리 동네 에코하우스는 2013년 선부2동 주민센터에서 처음 시작되어 4년째 지역주민들의 일자리가 되고 있다. 이현경 담당자는 “많은 분들이 재봉틀 사용법이나 재단을 모르고 오시지만 이 작업을 통해 재단, 재봉을 배우면서 다른 일자리 찾는 데에도 도움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폐 현수막 활용사업은 환경보호와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 효과를 거두면서 폐 원단과 폐 가구를 활용하는 데까지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 문 의 :선부2동 에코하우스(031-481-6709)
백미란 명예기자_whity0218@naver.com

안산시의회, 세월호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

12일 제233회 임시회 5차 본회의서 의결

사진설명_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박은경 세월호 대책 특위 위원장이 제안 설명을 하고 있는 모습.

안산시의회가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의회는 지난 12일 제233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세월호 대책 특위 박은경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이 건의안을 참석 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의회는 건의안에서 "참사의 진상을 조사하도록 임무를 부여받은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 위원회가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한 채 오는 9월말로 활동이 종료된다"며 "이럴 경우 선체 인양 후 진실규명을 위한 실질적인 선체조사는 전혀 이뤄질수 없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은 국민에 대한 진정한 국가적 책임이며, 세월호 참사로 통한의 고통을 겪고 있는 유가족들이 건강한 공동체의 일원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도리이자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세월호 참사의 원인규명과 의혹을 밝힐 주요단서인 세월호의 온전한 인양과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실질적 조사를 할 수 없었던 기간을 반영해 법과 제도적으로 진상조사 활동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세월호특별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안산시의회,'반월산단 구조고도화 문제점과 대안 토론회' 개최

구조고도화 사업과 관련 건설적인 **대안 마련 모색**

사진설명_안산시의회가 21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반월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 문제점과 대안 토론회'를 열어 구조고도화 사업의 방향성을 점검했다. 사진은 이날 토론회의 한 장면.

안산시의회가 21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반월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 문제점과 대안 토론회"를 열어 반월산단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현재 추진되고 있는 구조고도화 사업에 대해 문제점은 없는지 짚어보고 건설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의회가 주최하고 의회 의원연구단체 '안산희망발전소'와 지역노동단체 등이 주관한 이날 토론회는 박준도 노동자의미래 정책기획팀장과 공계진 시화노동정책연구소 이사장이 각각 '구조고도화와 노동의 위기' 및 '반월공단 구조고도화 실태와 방향'을 주제로 발제를 맡았다. 토론회에서는 과거 구로공단에서 추진됐던 '서울디지털산업단지 첨단화 사업' 사례에 대한 분석과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반월산단의 구조고도화 사업의 방향성에 대한 진단이 이뤄진 가운데 반월산단 구조고도화 사업이 산단내 당사자들의 이해와 요구, 주민들의 입장 등을 다각적으로 반영해 추진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일부 사업이 역세권 개발 등 부동산 개발에 치중돼 있어 정작 노후된 공단의 산업구조 재편과 공단 근로자들의 근로여건 개선 부문에 있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토론자로 나선 나정숙 의원은 반월산단의 구조고도화 사업이 장기적 관점의 노동정책과 병행 추진돼야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밝히고 아울러 산단 내에 사회적 약자가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과 구조고도화 사업 영역에 중소영세기업 발전을 위한 지원 정책을 포함할 것 등을 제안했다.이에 시와 한국산단공 측은 산단 근로자 등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해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구조가 이미 마련돼 있거나 구성 예정임을 알리고, 추후 소통과 협의를 통해 미흡한 사항은 개선해 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산시의회 의원들 지역 사회복지시설에 온정(溫情) 전해

상록·단원구 시설 4곳 찾아 위문… "따뜻한 명절 보내도록 관심 부탁"

사진설명_안산시의회 의원들이 6일 부곡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한 모습.

안산시의회 의원들이 추석을 맞아 나눔의 손길이 필요한 사회복지시설 4곳을 방문해 위문했다. 이민근 의장을 비롯한 의원 일행들은 지난 6일과 8일 이틀 동안 상록구 일동의 선심양로원과 부곡동부곡종합사회복지관, 단원구 고잔동의 비젼샘, 와동 해피하우스를 방문해 입소자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내는 데에 도움이 되도록 소정의 위문금을 전달했다. 이들 시설은 어려운 여건이지만 노인과 아동, 장애인 지역에서 소외받기 쉬운 계층에게 보다 나은 생활을 위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의원들은 이번 시설 방문에서 위문금 전달 뿐만 아니라 시설 관계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의회 차원의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경기도 미술관

가을, 그리고 전시

가을이 성큼 다가왔다. 가을은 감성과 지식을 풍성히 채우는 계절. 마음의 양식을 채우기 딱 맞춤인 곳으로 경기도립미술관이 있다. 저수지의 산들바람과 카페에서 즐기는 커피는 덤이다.

사진 김진국 명예기자 _ hanmarus@naver.com

Photos in Ansan

사진으로 보는 안산

2016 안산 희망 마라톤 대회

가을, 그리고 마라톤

걸어도 되고 뛰어도 되는 안산희망마라톤 대회. 코스도 다양해서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누구나 참여해도 즐겁다. 아직 참여해 보지 않은 분은 내년엔 꼭 도전해 보시길.

사진 김진국 명예기자 _ hanmarus@naver.com

2016 PNLG 국제컨퍼런스의 의의와 과제

지난 9월 6일, 안산문화예술의전당에서 열린 동아시아 해양환경관리협력기구 지방정부 네트워크(PNLG) 국제컨퍼런스가 '안산선언문'을 채택하며 막을 내렸다. 9개국 28개 도시들이 참여한 이번 컨퍼런스가 갖는 의의와 앞으로의 과제는 무엇일까?

혹자는 안산이 해양도시가 맞느냐고 반문할지도 모른다. 그도 그럴 것이 대부분의 시민들은 일상에서는 갯벌이나 바다를 구경하기 힘들다. 선박 등 해양관련 시설이나 장비는 더더욱 찾아볼 수 없다. 내륙에 있는 여타 도시민의 일상과 비교하여 특별한 점을 찾아보기 어렵다. 이렇게 느낄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주거지와 생활터전이 해양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이다. 서해안을 중심으로 놓고 볼 때, 주거지를 둘러싸고 있는 것은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이고 그 외곽에는 시화호가 자리잡고 있다. 하지만 가만히 들여다 보면 안산은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해양도시일 뿐만 아니라 향후 해양을 통해 무한한 발전 잠재력을 가진 도시임을 알 수 있다. 최근 안산시에서 펴낸 [2016 State of the Coasts of Ansan City] 자료를 보면 안산시 해안선의 총 길이는 94.65km이고, 안산시 관할지역 내 연안수(沿岸水)는 241.49㎢에 이른다. 또한 연안해역(Costal sea)은 23,523ha, 연안육역(Costal land)은 6,299ha에 달하며, 경기도의 슈퍼경기만의 발전과 개발영역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대부도는 안산의 미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보물섬으로 그 가치를 높이 평가받고 있다. 때문에 안산시는 미래도시를 설계함에 있어 대부도를 중심축에 놓고 있다. 안산시는 통합연안관리(ICM) 2차 6개년 계획(2015-2021)을 수립하고, '생태계 기반 복원(ecosystem-based regeneration)'의 비전을 제시했다. 이 비전은 '조화로운 해양환경과 균형잡힌 해양의 이용'에 대한 목표와 전략을 담고 있다. 이외에도 안산시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을 바탕에 두고 해양도시로서의 역량을 갖추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정책적 측면에서 대부해양관광본부를 설치하고 조력발전소나 풍력·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의 활용과 보급에 대한 적극 나서 왔다.

이번 PNLG 국제컨퍼런스의 안산개최는 이러한 노력들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안산이 국제사회에서 해양관련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선도자로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제 본격적으로 해양도시 안산으로서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면서,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에서 그동안의 축적해 온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안산선언문의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번 행사를 통해 PNLG의 목표와 2015년 6월 UN이 채택한 지속 가능개발 목표(SDGs)를 연계하고, 2030년까지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목표와 책무를 확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나아가 블루이코노미와 그린이코노미 성장전략을 확정하고 전략행동계획을 보다 구체화한 행사였다.

이제 남은 과제는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모델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그 과정을 면밀하게 체크해 나가는 것이다. 아울러 아직 미흡하다고 할 수 있는 해양관광이나 해양레포츠에 대한 관심과 투자를 늘리고, 해양환경 개선을 위한 기술개발과 시설확충에도 적극 나서야 할 때다. 특히 중앙정부, 경기도를 비롯해서 인근 지자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은 필수적이다. 이미 '에코 뮤지엄' 조성 등의 사업계획을 통해 협력을 시도해 나가고 있지만, 대송단지나 시화호의 개발과 이용, 마리나항과 체육문화센터의 건립 등 각종 시설의 설치와 활용에 있어서도 타 지자체나 정부기관과의 협력은 절대적이다. 이제 시민들도 해양도시로서의 안산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그 미래에 관심과 참여를 보여줄 때다.

김재덕
정책연구팀장(경영학박사)
(재)경기테크노파크
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

여르미오 DAY

회사에 출근하면서 '여르미오. 하하 & 스컬'의 공연 플래카드를 보며 예당에 전화를 걸어 보았다. 젊은 시절엔 이문세, 이은미 등 좋아하는 가수의 공연장에 10만 원도 무서워하지 않고 함께 춤추며, 즐기며 공연장을 쫓아다니곤 했던 내가 결혼을 하고 나서는 천 원도 머리속에서 계산하게 되어 감히 공연장에 갈 엄두도 내지 못한다. 그러다 무한도전, 런닝맨의 광팬인 딸이 좋아하는 '하하' 출연에 나도 모르게 들뜨기 시작했다. '꼭 시간을 내어 예당에 가야지.' 딸에게 얘기했더니, 처음엔 시큰둥하더니 따라나섰다.

친구 엄마랑 딸애랑 친구랑 넷이서 택시를 타고 예당 공연장으로 향했다. 생각만큼 많은 사람으로 붐비지 않아 우리는 무대와 가까운 곳에 돗자리를 깔고, 음료수를 먹으며 공연을 기다렸다. 복면가왕 국카스텐의 노래를 스피커로 들으며 따라 부르기도 하고 라틴 음악에 심취하여 멋진 춤도 구경하고, 노래도 들었다. 여름밤은 조금씩 깊어가고, 공연 열기도 차 오를 때 쯤 하하와 스컬의 공연! 얌전히 앉아서 박수를 치며 노래를 따라 부르다 하하의 "일어나서 앞으로 조심조심 움직여 주세요. 손을 들고, 소리 질러."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의 각각의 연령대로 소리를 지르면서 우리는 어느새 뜨거운 공연장 분위기로 바뀌어 버렸다.

친구엄마랑 나이도 잊은 채 아이들과 함께 박자에 맞추어 손을 흔들고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으며 여름밤을 즐겼다. 마냥 아이일거라 생각했던 딸도 손을 흔들며 노래를 부르고, 어느새 우리 딸이 함께 공연을 즐기는 나이가 되었나 뒤돌아 보게도 되고, 다시 젊은 시절로 되돌아 온 것 같은 정말 신나는 시간이었다.

공연을 마치고 집으로 오면서 연예인을 처음 봤다며 좋아하는 딸아이. 하하가 너무 친근하게 다가온다고 계속 웃음 띤 얼굴로 얘기하는 모습을 보며 '여르미오공연'에 잘 왔다는 생각을 했다. 아이와 함께한 오늘 이 시간은 더운 여름만큼 길게 오래, 좋은 추억으로 남을 것 같다.

월피동 박정화

안산시에 하고 싶은 말! 말! 말!

석수초등학교 후문 쪽 화단에 데크가 널찍하게 있고 두 군데 원형 벤치가 놓여있습니다. 바로 원형벤치 가운데는 나무가 심어져 있어 보기가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무가 점점 굵어지면서 지금은 데크 구멍을 넘어서 비좁아서 자라질 못하고 있습니다. 조속한 처리를 부탁드리며 미리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말씀하신 석수초 후문 데크는 좋은마을만들기 사업으로 조성되었습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정비하도록 하겠으며, 다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정비에 대해서는 다소 시일이 소요됨을 알려드리오니 널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 선부2동주민센터

청소년 활동에 관심을 가지는 한 시민으로서 안산시 청소년들이 다른 지역처럼 청소년 복지 혜택을 더욱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에서는 청소년에게 더 많은 활동공간을 지원하기 위해 화랑유원지 내의 유휴공간에 단원청소년 수련관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설계 중에 있으며 2017년 착공하여 2018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시청 교육청소년과

안산 화랑유원지 캠핑장을 애용하던 시민입니다. 세월호 사고로 인해 이후 폐쇄된 후 만 2년이 넘게 폐쇄되어 있습니다. 화장유원지 캠핑장 시설 또한 시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지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개장 계획이 없다면 폐장 후 다른 시설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진행하던지 아니면 재개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는 지난 2014년 4월 16일에 발생한 세월호사고 이후 희생자들에 대한 추모분위기 확산 및 화랑유원지 내 정부합동분향소 운영에 따라 안산화랑오토캠핑장을 잠정적으로 휴장 중에 있습니다. 최근 캠핑장 휴장이 장기화되면서 캠핑 수요자들의 정상 운영 요구가 있으나, 캠핑장이 정부합동분향소와 인접해 있고 캠핑장 특성상 야외취사 및 음주행위 등으로 인해 자칫 추모분위기를 저해할 수 있다는 일부 의견이 제기되고 있어 재개장 시점이 늦어지고 있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우리 시는 사회적 분위기 및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속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재개장 시점을 검토 중에 있으며, 향후 캠핑장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시청 관광과

화정천을 잘 만들어 주셔서 운동도 하고 가족들과 산책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리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전거가 다녀서 위험하고 좁은 거리의 잡풀 관리가 안돼 산책로가 더 좁아졌습니다. 정비 바랍니다.

귀하께서 의견 주신 화정천 산책로는 제초작업을 주기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하천 자연 생태계와 야생화가 보존 될 수 있도록 산책로 주변 1m 구간을 연 3~4회 제초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야생화가 고사 되는 11월중에는 전면 제초작업을 실시할 예정이며, 하천방역은 보건소와 협조하여 주기적으로 시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시청 건설과

시민의 의견을 크게 듣겠습니다

시장에 바란다 https://mayor.iansan.net
사람중심 이야기 마당(매월) https://sotong.iansan.net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동 방문(월 2회)
안산드림TV http://ansandream.tv
시민제안 http://idea.iansan.net

2016년 교통유발부담금 납부안내

부과대상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인 시설물
부과 대상자 부과대상 시설물의 160㎡이상 면적을 소유한 자(건축물대장 기준임)
납부기간 2016. 10. 16 ~ 10. 31
납부방법 고지서 납부 : 안산시 관내은행 및 전국농협, 우체국
ARS 납부서비스 이용 : ☎ 1577-9274(교통유발부담금 안내)
신용카드 결제납부 가능 (현대,삼성,신한,국민,비씨,롯데,외환카드만 가능)
문 의 상록구 경제교통과 ☏ 481 - 5294, 5579 (FAX 481- 5578)
단원구 경제교통과 ☏ 481 - 6294, 6296 (FAX 481- 6578)

제3회 엄마랑 함께하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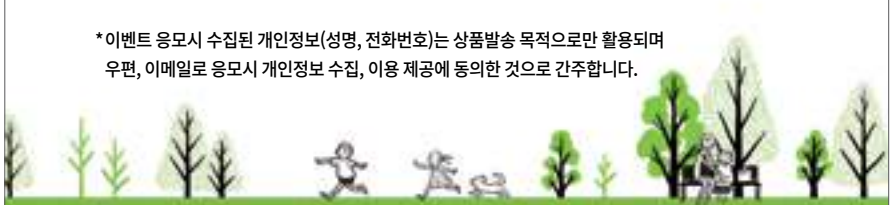
일시 2016년 10월 8일(토)~9일(일), 11시~17시
장소 안산 화랑유원지 대공연장 일대
주최 416가족협의회 / 416공방
주관 안산온마음센터
문의 031-411-1541
031-481-3316

시승격 30주년 기념 시정소식지 구독자 이벤트

'청년 안산이 좋은 5가지 이유'를 적어 보내주세요

○ **응모기간** 2016. 9. 7 ~ 9. 30
○ **응모방법** 이메일(bravo@iansan.net) 또는
우편접수(15335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87 안산시청 공보실
시정소식지 담당자 앞)
○ **당첨발표** 시정소식지 428호(10. 12발행)
○ **당첨선물** 20명 메가박스 콤보패키지(*응모시 성명, 연락처(휴대전화) 기재 필수)

*이벤트 응모시 수집된 개인정보(성명, 전화번호)는 상품발송 목적으로만 활용되며 우편, 이메일로 응모시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주택금융공사 「은퇴금융아카데미(무료)」 개최 안내

대상 노후 준비에 관심있는 모든 분 (선착순 50명)
기간 10.4.(화) ~ 11.8.(화), 매주 화요일 3시간(14시 ~ 17시)
내용 은퇴관련 경제금융지식 및 은퇴생활정보
컴퓨터, 인터넷을 활용하여 기사 작성이 가능한 자
은퇴재무설계, 소득 및 지출관리, 수지침,풍수지리 강의,
상속·증여관련 법률정보 등
장소 군포시 늘푸른 노인복지관
(4호선 산본역 3번출구 도보10분 거리)
신청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hf.go.kr)

한국주택금융공사 **경기중부지사 031) 478-7052**